

역대급 재난시대를 이겨내는 지혜

A Wisdom of Overcoming The Time of Worst Disaster

임진우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총괄사장

1. 집중호우에 대하여

전국에 장마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까지 중부권과 수도권을 할린 수마가 남부권까지 강타하더니 제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다. 지난주에는 의암댐에서 작업 중인 민간, 행정선이 뒤집히며 댐 수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영호남 남부권에 최고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 주변 마을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다. 낙동강과 섬진강 주변은 큰 비로 강물이 불어나 2000 여 가구와 3000 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산사태와 홍수 등을 야기하는 집중호우와 더불어 세력을 키워 북상중인 태풍의 경로에 따라 설상가상, 비와 강풍의 피해가 우려스럽다.

집중호우의 재난에 대한 우울한 뉴스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를 뒤로 하고 잠시 비오는 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잠시 생각을 돌아본다. 특히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인지 맑은 날이었다가도 예고 없는 게릴라성 호우를 동반하는데 그럴 때는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해 당황한다. 또 어쩌다 운 좋게 챙겨 나온 우산이 있더라도 음식점이나 버스에 두고 내리기 일쑤다. 정말 그럴 때는 대략난감이다. 나의 유년시절에도 장마철이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이상기후라는 단어조차 없었고 오히려 대신 비에 대한 낭만이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환경도 많이 변했다. 30년 가까이 흘러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편리로 무장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이름의 진보된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되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많은 자연녹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대규모 토목공사 후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아쉽게도 현대사회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비 오는 날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사유가 불가능하다. 다만 창 밖으로 '비가 온다, 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의 이분법적 판단이 디지털개념처럼 존재할 뿐이다. 기밀성이 좋은 창호재 덕분에 시원한 빗소리조차 들을 수도 없다. 살다보면 사람이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집도 자연의 일부였던 옛 시절이 아쉽다. 우리가 편리라는 것을 취하는 순간 간직하고 싶은 또 다른 가치는 증발되는 법이다.

요즘 뒤숭숭한 집중호우와 태풍 관련 뉴스를 읽고 있으면 거대한 재해 앞에서 인간은 참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이 든다.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 달이 넘는 장마와 집중호우 재해에는 지구의 기후변화가 배경에 존재한다. 그 변화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저런 상념에 잠긴 오늘도 비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내린다.

2. 폭염에 대하여

이번 여름은 이상할 정도로 긴 장마와 태풍으로 비 피해가 컸고 이어서 폭염이 예상된다. 예년에는 장마 대신 계속되는 열대야와 찜통더위로 고생했었다. 특히 작년에는 대지가 타들어가던 시기가 있었다. 사상 최악의 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최고기온의 기록을 연일 경신했다. 그 시절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다. 안타깝지만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밭에서 일하다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보도되었다. 잠시 점심시간에 외출해도 땀이 범벅이 되는 데다 며칠 동안 초열대야로 숙면하지 못한 이유로 불쾌지수마저 수은주와 정비레 상태가 되었다.

오래전부터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는 지속되어 왔지만 우리 주변은 아직도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의 무관심, 무분별, 무절제가 지구의 기온상승을 유발하고 폭염을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위협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인간에 의한 대기, 토양의 교란과 에너지 과소비는 이 변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위험수위의 한계선을 넘어가면서 더 이상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을 아는지... 하지만 현재도 더위를 견디지 못해 에어컨을 더 많이 가동해서 에너지 과소비의 악순환이 계속되니 갈수록 태산이다.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성찰과 절제가 필요하다. 에어컨이 과도하게 작동되는 사무실 안에서 근무 중이라면 이 무더위에도 야외작업이 불가피한 공사장의 인부나 불 앞에서 조리를 해야 하는 주방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열치열,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뜨거운 음식으로 더운 기운을 다스리거나 죽부인으로 여름을 이겨내며 생활 속에서 지혜를 발휘했다. 지금은 불별과 땀별이 점령했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새벽녘 열린 창으로 선선한 기운이 도래할 것이고 이 수퍼 폭염도 서서히 퇴각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입추도 지났으니 자연의 섭리가 그렇다.

3. 미세먼지에 대하여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겨울과 봄을 맞으며 동반했던 미세먼지 걱정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보자. 한겨울에도 미세먼지 주의보라니..... 최악의 미세먼지는 중국 발 스모그에 국내 대기 정체가 겹치면서 더 악화되었고 얽힌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겨울황사까지 가세했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열어 날씨나 기온을 보는 일에 하나 더 보태어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데 점점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도시는 세기말적 암울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거리의 사람들은 뽀얀 대기 속에서 선글래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좀비의 무리처럼 방황하며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스모그와 안개가 뒤섞이면 몽환적인 풍경은 한층 더 고조된다.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그렸던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매트매क्स같은 장면들이 현실 속에서도 이따금 확인하게 되는데, 상상속의 초현실세계와 현실이 동일시되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여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라는 주의보가 내려졌던 어느 날에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했지만 직접 호흡하며 불편함을 체험해보니 미세먼지의 해악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너무 흔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던 깨끗한 공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하여

무더운 여름이 오면 퇴각을 예상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19가 왕성한 전염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이 사건은 과거 역사에 등장했던 여느 전염병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 세계는 이제 전대미문의 사건에 휘말려 들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촌의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며 견잡을 수 없는 전염속도를 진단하여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제 코로나군단은 어느 나라, 어느 영역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초토화 시키고 있고 세계경제를 쥐고 있던 강대국마저 코로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해지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는 선진, 후진국의 서열조차 재배열되고 있는 것 같다.

세균성 전염병의 경우에는 위생적인 환경구축과 항생제 개발로 사망률은 크게 낮아졌지만 바이러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미래로 갈수록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이러한 질병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건강한 환경이 보장된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건축과 환경을 다루는 우리 건축가들에게도 역시 건강도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집이라는 개념도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비, 바람, 추위, 짐승의 공격 등,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최소 방어 수단이었으며 ‘셸터(Shelter)’라는 이름의 보호 기능이었다. 이제 애프터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집과 우리의 건축과 우리의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 미래의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건축가들은 건강한 건축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라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다.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함은 이 시대의 건축가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자 과제다.

5. 접촉(contact)과 연결(connection)의 지혜

집중호우와 폭염과 미세먼지와 팬데믹.....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재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진, 산불, 쓰나미 같은 수많은 재해들이 많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재난들은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원인이 존재한다. 심각한 기후변화의 배경에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 즉, 인간이 저지른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자연의 준엄한 경고다. 인류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도 앞으로만 계속 전진한다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언택트 시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야 하고 접촉은 줄여야 한다. 교육기관도 인터넷 강의로 만남을 최소화 하고 있다. 접촉횟수와 연결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동체 문화의 연결, 나아가 지구촌 전체가 연대감에 대한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접촉회수가 많으면 그만큼 서로 연결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접촉을 줄이면서 서로간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러니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접촉 방식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대면방식은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 인류는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만이 다가올 또 다른 재난을 막는 지름길이다.

한걸음 나아가 안전한 환경과 건강의 문제는 앞으로 인류에게 더욱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지속가능한 행복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도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루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와 성과를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에게서 역대급 재난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역사학자인 ‘유발하라리’의 글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보는 것은 어떨까.

“ 인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공공의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재난에 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 ”